

의학교육에 대한 바람

박 기 창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19세기와 20세기의 세상은 너무 다른 세상이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세상차이는 더욱 심할 것 같다. 새 천년이 되었다고 60억 지구 사람들 모두가 떠들석하다. 21세기는 정보, 통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지구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 인간에게는 생노병사가 여전히 중요한 인생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1. 의료와 의학의 주체를 현재의 의과대학이나 졸업생들이 계속 담당할 수 있을까?

의학과 의료서비스는 인간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수명은 연장되고, 많은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 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가 담당할 것이다. 서양의학이 19세기와 20세기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지금도 의학의 발전

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의학과 의료를 서양의학을 하는 현재의 의과대학이 계속 주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의료행정은 이미 자본을 가진자, 경영을 아는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의과대학의 개편이나 의사수급, 의료정책은 정치가와 관료, 시민단체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의사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은 것은 얼마 안 된다. 우리나라에선 현대의료가 들어오기 전까지 중인의 신분이었다. 서양에서도 근세 이전엔 테크니션에 불과했다. 의사의 신분이 또다시 테크니션이나 중인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의사의 품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아마도 21세기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각국의 경제수준이나 과학수준, 문화수준 등은 점차 비슷해져 갈 것이다. 의학의 수준도 비슷해져 가면서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첨단 의료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20세기 초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시적인 치료를 받

왔지만 지금은 첨단 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감개무량하다. 선견지명이 있는 선배의사들과 첨단의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과 운 때문이었으리라.

2. 지금까지 노력해온 선배 의학자, 의사들의 공헌을 이어가야 된다.

20세기보다도 훨씬 더 빨리 변화될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선배들이 해놓은 업적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변화에 열심히 적응해야 한다. 무조건 바꾼다고만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를 잘 알고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의사의 지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의료를 담당하는 인력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사회주의제도에서의 의사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진다. 자본주의가 너무 기승을 부리면 의사는 거대한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다.

3. 개혁은 정말 잘해야 한다. 설부른 교육개혁은 회한 만을 남긴다.

의학교육의 개혁이 의료계의 화두에 오른 지도 몇 년이 지났다. 어떠한 개혁이 좋은지 왈가왈부하 많다. 우리의 의학이 서구의 의학만을 답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학을 리드해 나가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의학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4+4제도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일 게다. 연구중심의 의과대학을 만들어 세계의 일류대학에 버금가는 대학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일류로 인정받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한 두개 있으면 자랑스럽고 뜻깊은 일이다.

BK21계획이 많은 교수들의 반발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도 결국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 한 두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발상되고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2-3류 대학으로 전략하는 나머지 대학들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고 국민 정서 통합에 큰 앙금을 새겨 놓았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부흥하고 잘 살게 된 것이 초일류대학의 역할 때문일까? 산업일선에서 소대장, 중대장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을 반납하고 일한 사람들은 어떤 대학 출신들이었던가?

4. 의과대학의 필연적인 목표는 진료기능을 갖춘 의사의 양성

의과대학은 우선 의사를 만드는 교육기관이다. 그가 속한 지역사회의 의료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어느 대학이든지 훌륭한 의사를 만들고 일류 의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대학의 목표이다. 아마 연구중심의 대학을 만든다 하여도 졸업생의 90%는 임상 의사가 될 것이다.

일단은 의사로서의 소양을 키워주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일단 의사가 된 후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학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들에게 학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키워주는 것도 의학교육의 의무이다. 그래서 의

과대학교육을 획일적으로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중심대학, 진료중심 대학으로 이분하는 것은 자칫하면 일류대학, 이류대학으로 나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각 대학이 스스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변화해 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소양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들어오는 입학생들에게 이 대학은 연구중심대학, 진료중심대학이라고 양분해서 공지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 풍토는 일류와 이류를 편가르는데 이골이 나 있는 나라이다. 수능점수 380점 이상 A대학, 370점 이상 B대학 360점 이상 C대학하는 것이 지겹지도 않은가? 중고등학교에서 일류중고를 가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최우수집단에 속한 학생들이다. 그들은 충분히 훌륭한 의사와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다. 그들에게 입학 때부터 열등감을 심어 주는 것은 큰 잠재력을 축소시키는 셈이 된다. 작은 대학의 연구실에서도 세계의 의학사에 빛나는 연구업적이 나오는 일도 있는 법이다.

5.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특과과목에도 꼭 알아야되는 병들이 있다.

의사로서의 충분한 소양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주과목을 집중 교육시키고 특과 과목을 선택 교육시키는 방법도 좀 더 정교한 과정으

로 다듬어야 한다. 주과목의 교육과제중 의사의 기본적 교육 목표에 해당되지 아니한 과정도 들어가 있으며, 특과 과목에도 의과대학 과정 중 꼭 배우고 익혀야 될 의료기술이나 지식이 있다. 예를 들어 골절이나 흔한 피부병, 흔한 결막염 같은 안질환 등은 의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질병이 아닐까? 외과의 간장이식 수술이 의과대학생이 자세히 숙지해야 되는 질병일까?

기본이 되는 질병과 술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6. 주입식 교육은 전근대적.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소양을 키워줘야. 의사소통, 경영, 리더쉽의 능력들도 필요.

지금과 같은 주입식교육으로는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 이상이 되는 지식과 기술은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과 연구하는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 전근대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적이고 쌍방간 의사소통이 되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21세기는 첨단, 정보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듯이, 첨단, 정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환자들이 의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그들을 진료하고 올바르게 리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사고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다양해질 것이다. 많은 직종의 전문가가 일을 하게되며, 진료실 이외의 공간에서도 의료서비스가 행해질 것이다. 의사가 의료의 중심에서 팀워크를 유지해나가려면 의사의 지적 지식 이외의 소양이 필요하다. 리더쉽, 경영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병원을 운영해나가는데도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내용은 부적합하다.

문제중심학습, 가상환자 실습, 인성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교육방법이 확대되어야 한다. 100명 200명을 교실에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이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교육의 개방으로 서구의 의과대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먼저 우리가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7. 의학교육학회와 각 의과대학 교육학과들의 역할에 기대를 건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고 본다. 의학교육학회의 선도적인 교육방법 연구나 워크샵, 실제적인 시도가 있었다. 의사국가고시의 개선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의과대학의 보수적인 풍토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도록 만들었다. 연세의대의 의학교육학과와 신설은 신선하다.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아직 여력이 없는 대학을 리드해 나가주어 고맙기 그지없다.

앞으로 의학교육학회 등의 기구를 통해 의학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플렉스너 보고서가 나올 때의 미국 의과대학의 상황을 지금의 우리와 비교를 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편하다.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은 갖추고 있다. 우선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대학이든지 들어오고 있으며, 대학 평가나, 국가고시 덕분에 대학에서 의과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과 투자를 한다. 지속적인 질향상(Quality improvement) 활동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모니터하고 고쳐 나간다면, 그리고 각각의 대학은 나름대로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우리의 의학교육의 앞날은 밝다고 본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것 자체는 사실 위험하다. 달이 차면 기울고, 오르막길을 가게 되면 내리막길이 있음을 자연이나 인생의 모든 사건에서 보게 된다. 의학의 위치나 의사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의학교육 뿐이라고 생각한다.